

2015년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입 전망과 시장여건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개 요 / 2

II. 2015년 지역별 수출여건 / 9

- | | |
|----|------------------------|
| 9 | 1. 북미 |
| 12 | 2. 중국권(중국, 홍콩, 대만) |
| 15 | 3. 유럽 |
| 17 | 4. 일본 |
| 19 | 5. 아시아(동남아+서남아) · 대양주 |
| 24 | 6. 중동(북아프리카 제외) |
| 26 | 7. 중남미 |
| 28 | 8. CIS |
| 29 | 9. 아프리카(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 |

III. 2015년 지역별 수입여건 / 31

- | | |
|----|------------------------|
| 31 | 1. 북미 |
| 31 | 2. 중국권(중국, 홍콩, 대만) |
| 32 | 3. 유럽 |
| 33 | 4. 일본 |
| 33 | 5. 아시아(동남아+서남아) · 대양주 |
| 34 | 6. 중동(북아프리카 제외) |
| 34 | 7. 중남미 |
| 35 | 8. CIS |
| 35 | 9. 아프리카(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 |

요 약

□ (전체) 우리나라의 2015년 수출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6,044억 달러, 수입은 4.7% 증가한 5,575억 달러 전망

- 무역흑자는 469억 달러로 2014년보다 19억 달러 증가 예상

< 수출입 추이 및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596	2.1	5,776	3.2	6,044	4.6
수입	5,156	△0.8	5,326	3.3	5,575	4.7
수지	440	55.5	450	2.3	469	4.2
무역규모	10,752	0.7	11,102	3.3	11,619	4.7

주 :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2014년은 추정치, 2015년은 전망치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847개 정보원 의견 종합), 업종별 협회인터뷰

□ (수출) 2015년 지역 및 품목별 수출 전망

- 지역별 수출
 - 북미(9.2%), 아시아(7.4%) 지역 수출은 양호할 전망
 - 유럽(4.5%), 중국권(4.0%), 중남미(3.6%), 아프리카(3.2%), 대양주(3.0%), 중동(1.5%), 일본(0.6%) 수출은 증가세 유지 예상
 - CIS(△4.6%) 지역으로의 수출은 감소할 전망
- 품목별 수출
 - 일반기계, 자동차 수출은 미국 등 선진국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증가, 반도체, 석유화학, 선박 및 자동차부품 등 수출은 전년수준 유지
 - 석유제품은 글로벌 공급량 증가로, 무선통신기기는 중국의 중저가 제품 출시로 인해 수출 감소 예상

□ (수입) 2015년 수출증가로 수입수요도 양호할 전망

- 일부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수입 증가세가 기대되나, 유가 하락의 영향에 따라 증가율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I. 개요

□ (전체) 우리나라의 2015년 연간 수출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6,044억 달러 전망

- 주요기관들은 2015년 세계 상품교역이 전년보다 4.0~5.1% 증가할 것으로 예상

* WTO(%) : ('14) 3.1 → ('15) 4.0, IMF(%) : ('14) 3.8 → ('15) 5.1

< 우리나라 수출입 추이 및 2015년 전망 >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5,596	2.1	5,776	3.2	6,044	4.6
수입	5,156	△0.8	5,326	3.3	5,575	4.7

주 :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2014년은 추정치, 2015년은 전망치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847개 정보원 의견 종합), 업종별 협회 인터뷰

□ (지역별 수출) 북미·아시아 수출 양호, CIS지역 부진

- 대 북미 수출은 미국의 경기회복, 한·미 FTA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 예상, 아시아는 현지투자진출과 프로젝트 수주 확대 등으로 7.4% 증가 전망
- 대 유럽(4.5%), 중국권(4.0%), 중남미(3.6%), 아프리카(3.2%), 대양주(3.0%), 중동(1.5%), 일본(0.6%)은 수출 증가세 유지
 - 유럽과 중국은 불확실한 경제성장에도 FTA에 대한 기대로 완만한 증가, 중남미는 경기회복과 전년대비(△4.3%)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
 - 아프리카는 현지 인프라 투자 확대의 영향으로, 대양주는 건설경기 부양으로 수출 증가 유지, 중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출 유지, 일본은 엔저로 전년 수준 유지 전망
- 대 CIS 수출은 서방과의 긴장관계 및 루블화 약세 등으로 4.6% 감소 전망

< 2015년 지역별 수출 전망 >

(단위 : 억 달러, %)

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총계	5,596	5,776	3.2	100.0	6,044	4.6	100.0
북미	672	734	9.1	12.7	801	9.2	13.3
중국권	1,893	1,900	0.3	32.9	1,976	4.0	32.7
유럽	516	544	5.6	9.4	569	4.5	9.4
일본	347	332	△4.2	5.7	334	0.6	5.5
아시아	964	1,034	7.2	17.9	1,110	7.4	18.4
대양주	192	220	14.9	3.8	227	3.0	3.8
중동	338	360	6.8	6.2	366	1.5	6.1
중남미	363	347	△4.3	6.0	360	3.6	6.0
CIS	157	151	△3.8	2.6	144	△4.6	2.4
아프리카	153	152	△0.5	2.6	157	3.2	2.6

주1)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2014년은 추정치, 2015년은 전망

주2) 지역구분 : 아시아(동남아 + 서남아), 중국권(중국·홍콩·대만),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제외), 아프리카 대륙(북아프리카 국가 + 사하라이남)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511개 정보원 의견 종합)

< 2015년 지역별 수출 기상도 >



□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 ▶ 미국 중심의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라 일반기계, 자동차 등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반도체, 석유화학, 선박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수준을 유지할 전망
- ▶ 그러나 석유제품은 글로벌 공급량 증가로, 무선통신기기는 중국의 증저가 제품 출시로 수출이 감소할 전망

- **(선박)** 세계 조선시황 회복기에 발주한 선박 인도로 수출은 소폭 증가할 예정이나, 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여부가 변수
 - 중장기적으로 탱커, 컨테이너선, 가스선 수요 증가 전망,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해양플랜트는 위축
 - * 한국의 선박 수주량(백만 CGT) : ('11) 14.5 → ('12) 8.4 → ('13) 18.5 → ('14.1~9월) 8.5
 - * '14년 1~9월 선박 수출액은 전년대비 5.7% 증가

- **(자동차 및 부품)** 엔저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나, 현대·기아의 현지생산 확대와 FTA 효과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수준을 유지할 전망
 - FTA 확산에 따른 관세인하로 미국·서유럽 등 선진시장 중심의 수출 증가 예상
 - * EU의 국산 1,500cc 이하(승용차) 추가 관세인하 일정 : ('14.7.1) 3.3% → ('15.7.1) 1.6%
 - * '14년 1~9월 수출증가율(%) : 자동차 3.5, 자동차부품 3.7
 - 그러나 해외시장에서 한국차 판매는 엔저 영향으로 일본차 판매대비 부진
 - * '14년 1~9월 미국시장 자동차 판매증가율(%) : 일본차 7.1, 한국차 3.9
 - * '14년 1~9월 EU시장 자동차 판매증가율(%) : 일본차 8.4, 한국차 2.0

- **(석유제품·석유화학)** 석유제품은 '15년 1분기 완공 예정인 중국 및 중동 신규 증설 정유사의 공급량 증가로 수출 감소, 석유화학은 국내의 대규모 생산설비 확대로 수출 증가 예상
 - '14년 3분기 석유제품의 對中(△20.6%), 對日(△20.3%) 수출부진 지속

- 석유화학의 수출은 국내의 생산설비 확대와 증설계획에 따라 중간 원료·합성고무·합성수지 등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
 - * '14년 1~9월 수출증가율(%) : 석유제품 8.0, 석유화학 △4.5
-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 상승은 위협요인
 - * 중국의 석유화학 3대 부문 자급률(%) : ('09) 60.5 → ('11) 68.6 → ('13) 74.8
- **(반도체)** PC 교체수요 지속과 국내의 모바일 D램 생산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확대될 전망이나, 시스템 반도체의 부진으로 전체 반도체 품목의 수출은 전년수준 유지 전망
 - PC 메모리는 가격강세에 따른 수출 호조인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중저가 스마트폰 비중 확대에 가격 하락
 - * 메모리 수출증가율(%) : ('14.1Q) 55.0 → (2Q) 22.3 → (3Q) 31.2
 - * 시스템반도체 수출증가율(%) : ('14.1Q) △12.8 → (2Q) △5.6 → (3Q) △19.6
- **(철강)** 철강 수출은 선진국의 수요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초저가 수출로, 원료가격 약세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수준 예상
 - 美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강관 수요 증가는 긍정적이거나, 반덤핑·셰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확산은 철강수출에 위협요인
 - * 중국 철강재 수출단가(US\$/톤): ('13) 914 → ('14.1Q) 897 → (2Q) 836 → (3Q) 813
 - * 원료(철광석) 가격 추이(US\$/톤) : ('13) 136.6 → ('14.1Q) 122.4 → (2Q) 104.4 → (3Q) 95.4
- **(일반기계)** 프로젝트 발주 등 글로벌 수요 확대에 對선진국 및 중동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나, 중국경기 둔화와 엔저 지속 등으로 수출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
 - * '14년 1~9월 수출증가율(%) : 기초산업기계 6.5, 산업기계 △1.0, 정밀기계 29.6
- **(디스플레이)** 구조적 공급과잉 가운데 LCD는 TV 대형화로 패널가격 안정화, OLED는 IT기기용 패널 거래선 확대 등으로 수출유지 전망
 - * '14년 1~9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출증가율 : △7.4%

- (가전·컴퓨터) 가전제품은 평판 TV 판매경쟁 심화로 수출 소폭 감소, 컴퓨터는 SSD(반도체 저장매체) 중심으로 수출 소폭 증가 전망
 - 선진국에 대한 프리미엄급 생활가전 수출은 호조이나, 최대시장 중국의 가전제품 보조금 정책 종료와 인건비 상승은 부정적
 - * '14년 1~9월 가정용 전자제품 수출증가율(%) : 미국 8.1, 중국 2.0
 - SSD는 소형·대용량화 등 품질경쟁력 확보로 수출 증가세,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은 해외생산 증가 등으로 소폭 둔화
 - * '14년 SSD 세계시장 점유율 전망(%) : 삼성전자 29.0, 샌디스크 19.0, 인텔 18.0
- (무선통신기기) 중국의 고사양, 저가 제품 출시로 우리제품 경쟁력 약화, 국내업체의 베트남 등 해외생산 확대전략으로 수출 감소 전망
 - * '14년 1~9월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 : 11.2%
- (섬유류) 미국경기 개선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수요증가세 지속, 한·미 FTA, 한·터키 FTA 효과 가시화 등으로 수출 소폭 증가 예상
 - 중국·중동지역은 수요회복 지연, 아세안·EU·일본 수요는 증가
 - * '14년 1~9월 섬유류 수출증가율(%) : EU 8.4, 아세안 6.3, 중국△7.0

< 2015년 주요 품목의 지역별 수출 전망 >

품목명 (MTI코드)	2015년 전망(2014년 대비 증가율)										
	전체	북미	중국권	유럽	일본	아시아	대양주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일반정밀기계 (71,72,73,75,79)											
자동차 (741)											
자동차부품 (742)											
평판디스플레이 (836)											
반도체 (831)											
무선통신기기 및 부품(812)											
가전 및 부품 (82)											
컴퓨터 주변기기 및 부품(813)											
섬유 및 의류 (4)											
철강제품 (61)											
석유화학 (21)											
석유제품 (133)											
선박류 (746)											

호조(10% 이상 증가)
 양호(5~10% 증가)
 유지(0~5% 증가)
 하락(0~10% 감소)
 급락(10% 이상 감소)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511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 등 수입수요는 증가세 유지

▶ '15년은 수출의 성장으로 원자재 및 중간재 등 수입 증가가 기대되나,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전망, 수입선 다변화 등은 긍정적 요인

- 우리나라의 2015년 수입은 전년대비 4.7% 증가한 5,575억 달러 예상
 - 미국, 일부 유럽국가 경기회복에 따라 대 북미(9.8%), 유럽(9.1%) 수입은 증가, 대 일본(△6.7%) 수입은 경기침체로 감소
 - 에너지자원 수입은 원자재가 하락에도 신규 수입선 확보 등으로 안정적 성장, 반도체·장비 등은 해외 진출기업 생산능력 확대로 수입수요 증가 전망

< 2015년 지역별 수입 전망 >

(단위 : 억 달러, %)

지역	2013년		2014년		2015년		
	금액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총계	5,156	5,326	3.3	100.0	5,575	4.7	100.0
북미	462	510	10.3	9.6	560	9.8	10.0
중국권	996	1,062	6.6	19.9	1,137	7.1	20.4
유럽	627	712	13.5	13.4	777	9.1	13.9
일본	600	540	△10.0	10.1	504	△6.7	9.0
아시아	607	616	1.6	11.6	633	2.7	11.4
대양주	229	231	1.1	4.3	228	△1.3	4.1
중동	1,239	1,180	△4.8	22.2	1,270	4.9	22.2
중남미	184	179	△2.5	3.4	187	4.5	3.4
CIS	123	177	44.0	3.3	184	3.8	3.3
아프리카	872	118	35.2	2.2	127	7.5	2.3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336개 정보원 의견 종합)

품목명 (MTI코드)	전망	2015년 전망(2014년 대비 증감률)
원유 및 가스 (131, 134)		▪ 원유는 GCC의 안정적 공급과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으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나 유가하락으로 증가폭은 제한적, 천연가스는 러시아 등 신규 수입선 확보로 소폭 증가
반도체 및 장비 (831, 732)		▪ 우리 IT산업의 성장에 따라 반도체는 對중국권·아시아 수입 증가, 반도체장비는 對북미·EU 수입 양호
철광석 (112)		▪ 국제가격 하락에 따라 수입증가율은 소폭에 그칠 전망

- 호조(10% 이상 증가)
 양호(6~10% 증가)
 유지(0~5% 증가)
 하락(0~10% 감소)
 급락(10% 이상 감소)

자료 :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336개 정보원 의견 종합)

II. 2015년 지역별 수출 여건

1 북미 [9.2% 증가]

- ▶ 미국은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내수부문의 호조와 셰일가스 등 에너지 산업 장려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보여 '15년 3.1%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미국과 동반 성장세인 캐나다는 한·캐 FTA '15년 발효에 따라 수출여건 개선 기대
- ▶ 우리나라의 對북미 수출은 '14년 9.1%에서 '15년 9.2%로 증가할 전망

□ 경제전망

- (미국) 개인 소비지출과 기업투자 증가 등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 형성으로 2015년 미국경제는 3.1%로 상승할 전망
 - *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2.2% → ('15) 3.1%
 - 2014년 1분기 한파로 인한 기저효과, 주택경기 회복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개인 소비지출 안정적 증가세 지속
 - 설비노후화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 예상
 - * 개인소비증가율 : ('14.1Q) 1.2% → ('14.2Q) 2.5%
 - * 기업투자증가율 : ('14.1Q) △6.9%→ ('14.2Q) 17.5%
- (캐나다) 2015년 캐나다는 미국경제의 영향으로 안정적 성장 기대
 - * 캐나다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2.3% → ('15) 2.4%
 - 수출증가 및 무역수지개선, 산업설비 투자확대 등은 경제성장 견인
 - 높은 가계부채 비율, 유가하락, 금리인상 가능성 등은 위협요인

□ 시장여건

- 소비패턴, 산업경쟁력, 인구구조에서 새로운 트렌드 형성
 - (소비) 근검절약형 소비로 저가매장 증가, 온라인 거래 급성장
 - * 미국온라인 시장 매출액은 '13년 전년대비 13% 증가한 2,100억 달러

- (산업) 셰일가스 혁명으로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제조업 부활 본격화
 - * 셰일가스·오일 채굴산업 발전, 석유화학산업 및 후방산업 투자 확대
- (인구) 히스패닉과 아시안계 구매력 증가로 신소비계층 부상
 - * '12.7월 기준 히스패닉 5,300만 명, 아시안계 1,820만 명으로 '00년 대비 50% 이상 증가
-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공화당 양원 장악으로 무역촉진법안(TPA) 부활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탄력 전망
 - TPA 회생시 TPP 비준이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 가속화될 전망
 - * TPP 발효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TPP 가입국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제품의 대미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일본·중국의 전략적 對美 투자확대 지속
 - (일본) 현지기업 M&A 급증과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판매망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 * '13년 400억 달러 투자, 21년 만에 영국을 제치고 투자국 1위
 - * 최근 2~3년 셰일가스 개발프로젝트 투자 확대, 석유화학 공장건설 등 추진 활발
 - (중국) 셰일가스 개발 및 내수 회복을 겨냥한 제조업 투자 확대
- 자동차·항공·에너지 등 캐나다 주력산업의 글로벌 협력파트너 다변화
 - 가격경쟁력 확보 및 신흥시장 진출 목적의 공급망(Supply Chain) 글로벌화 가속

□ 2015년 수출전망

【호조요인】

- 달러화 강세 지속은 대미 수출 증가요인으로 작용
 - 미국의 빠른 경제회복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우리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 * 단, 엔저를 비롯한 위안화 및 신흥국 통화 약세는 경쟁품목 수출을 위협, 미국 기준 금리 인상 시기('15년 하반기 예상)도 대미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보호무역주의 둔화, FTA 효과로 수출 확대 전망
 - 2015년은 미국 선거가 없는 연도로 미국 업계의 로비에 따른 미 의회 보호무역주의 활동도 약화될 전망
 - 2015년 1월 1일 한·캐 FTA 발효로 對캐나다 수출 확대 예상
 - *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용기계 등 수출증가 전망
- 미국의 에너지 정책 및 송유관 건설 등으로 관련 수입수요 증가
 -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지속과 수출 재개로 수송선 등 수출인프라 수요 증가 전망
 - * 철강 등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 對북미 주력 수출품목의 수요증가 예상
 - (자동차)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 확대로 저유가 지속 영향, 한·캐 FTA 발효 이후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증가 전망
 - * '14년 1~9월 對북미지역 자동차 수출은 17.0% 증가
 - (무선통신기기) 2015년 신제품(Galaxy S6, LG G4) 출시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나, 미국산(Apple) 점유율 증가 추세로 증가율은 소폭 예상
 - * '14년 1~9월 對북미지역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8% 증가
 - (기계류) 에너지산업 호황에 따라 관련 산업시설 수요 증가, 기계 수출은 다소 증가할 전망
 - * '14년 1~9월 對북미지역 원동기 및 펌프 수출은 26.4% 증가
 - (철강제품)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 산업 호조에 따른 강관 수요 증가 전망
 - * '14년 1~9월 對북미지역 철강제품 수출은 46.6% 증가
 - * 단, 미국 라인파이프 반덤핑조사('14.11.5)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에 영향

【부진요인】

- 미국의 제조업 회귀현상(리쇼어링)은 우리 수출의 경계요인
 - * 美 리쇼어링은 GE, Caterpillar 등 제조업에서 Apple 등 IT분야, 중소기업으로 확대 추세

2 | 중국권 [4.0% 증가]

- ▶ 중국은 내수주도 '뉴노멀' 성장정책에 따른 신형도시화와 서비스업에 집중한 경기부양으로 '15년 7%초반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한·중 FTA 타결 후 교역증가가 기대되면서 수출이 확대될 전망, 중국 의존도가 높은 홍콩과 대만은 더딘 성장 예상
- ▶ 우리나라의 對중국권 수출은 '14년 0.3%에서 '15년 4.0%로 증가할 전망

□ 경제전망

- (중국) 개혁·개방·구조조정 및 내수 위주의 중고속 성장을 기조로 하는 중국판 '뉴노멀' 시대 본격 진입으로 2015년 중국경제는 7.1% 성장 예상
 - *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7.4% → ('15) 7.1%
 - 국영기업과 지방정부의 재정·조세, 금융 분야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
 - 경기둔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물경제의 안정을 위해 부동산 및 통화부문에 대한 완화정책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예상
 - 내수 진작과 서비스업 육성으로 점진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지속 하는 가운데 대외무역 활성화 등으로 경기 연착륙 전망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 '14년 5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허난성 시찰 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중국어로 신상태(新常态)라고 함. 중국경제가 고속에서 중고속 성장기에 진입한 상황에 적응하고 구조조정 등 시장화 개혁을 통해 민생안정 및 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을 의미

- (홍콩) 중국의 영향으로 2015년 2%대 성장률을 보일 전망
 - 거대경제권 중국의 미진한 회복세, 중국 임금상승 등에 따라 교역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 홍콩 경제성장률 전망(EIU) : ('14) 2.4% → ('15) 2.6%
- (대만) 글로벌 경기 호조에도 2015년 대만 경제는 둔화세 예상
 - * 대만 경제성장률 전망(EIU) : ('14) 3.7% → ('15) 3.5%

□ 시장여건

- 중국 도시화와 경기부양을 위한 SOC 투자 및 환경산업 적극 육성
 - 중국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간산업 및 철도·통신(SOC) 등에 정부의 투자확대 및 민간투자 허용
 - * 철도관련 산업에 총 8천억 위안의 정부투자로 7,000km 철도노선 신설
 -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관련 산업 발전
 - * 중국의 공기청정기 시장규모 50억 위안('13)에서 1,500억 위안('20)으로 단계적 확대
 - * 중국정부는 '20년까지 공공버스(20만대), 택시(5만대), 물류배송차량(5만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신에너지 차량 보급률 확대 예정
- 중국정부의 내수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의 자립형 산업구조 전환정책
 - 인터넷 쇼핑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택배시장 성장 예상
 - * '13년 온라인 고객 1인당 연평균 지출액 1만 위안 기록, '15년까지 중국 온라인 쇼핑규모는 3조 위안에 달할 전망
 -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로 헬스케어, 영화·레저산업 등 성장
- 중국 중심의 통상로드맵(FTAAP, RCEP) 실현, 대외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방 확대
 - * 위안화 금융허브, 전자무역시범구, 자유무역구 확산
 - * ECFA(대만·중국 경제개방 협정) 상품무역 개방 추진은 한·중 FTA 타결로 대만 상품시장 위협 전망
 - * 중국 국가개발위는 '新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 발표('14.11월), 적극적 대외개방, 외자관리 방식 개선과 투명도 제고로 산업구조조정 촉진 및 경제 글로벌화에 적응

□ 2015년 수출전망

【호조요인】

- 한·중 FTA 타결 후 교역증가 기대효과로 수출 확대 전망
 - 중국의 소비재,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 진출 본격화

- 대중 수출 공략품목인 철강, 기계류 및 섬유, 가전, 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와 관련부품의 관세철폐 효과로 우리의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 * (중국측 자율화율)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
 - * (한국측 자율화율)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 * 단, 중국의 내수주도 성장정책으로 수입수요 증가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부진요인】

- 한국제품의 홍콩을 통한 제3국 수출 증가세는 일본, 독일 등 일부 교역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더디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 對홍콩 수출증가율 : ('13) 14.9% → ('14.1~9월) △3.4%

【對중국권 수출은 주력품목별로 차별화】

- (반도체) 기업 PC 및 데이터 센터 서버용 메모리 수출 증가, 사물 인터넷 등 신성장산업 신규수요 지속 확대
 - * '14.1~9월 對중국 반도체 수출증가율 : 20.1%
- (평판디스플레이) 로컬업체의 중저가 제품 생산량 확대, 경쟁력 확보로 한국기업의 수출 부담 가중
 - * '14.1~9월 對중국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수출증가율 : △9.3%
- (석유제품) 중국 정제설비 증설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수출은 감소세
 - * '14.1~9월 對중국 석유제품 수출증가율 : △20.6%
- (무선통신기기) 중국의 4G 서비스 시작 이래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 예상
 - * '14.1~9월 對중국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가율 : 25.8%
- (자동차·부품) 대도시 지역 교체수요와 중서부 내륙지역의 자동차 대중화 지속으로 전년대비 수출 확대
 - * '14.1~9월 對중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증가율 : (자동차) 3.9%, (자동차부품) 13.5%

3 유럽 [4.5% 증가]

유럽 경제는 '15년에도 불확실한 회복 가운데 EU 기금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한·EU FTA 효과도 가시화되면서 우리나라 對유럽 수출은 '14년 5.6% 증가, '15년 수출은 자국산 제품 보호 및 유로화 약세 등 불안요인 작용으로 소폭 감소한 4.5% 전망

□ 경제전망

-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EU 회원국 모두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며, EU 전체로는 1.5% 성장 전망
 - * EU 경제성장률 전망(EU집행위) : ('14) 1.3% → ('15) 1.5%
 -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 중심으로 장기 긴축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
 - * 이탈리아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경제회복 지연, 크로아티아는 높은 재정적자로 성장 부진
 - 안정적인 EU 역내 교역비중을 보이는 동구권 국가는 견고한 성장세 전망
- 전반적 설비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경제성장 속도차이 우려
 - 민간소비·수출입·실업률·설비투자 등 지표 개선이 예상되나,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 등에 따라 국가별 차이 발생
 - * '15년 경제성장률 전망(IMF) : 이탈리아(0.8%), 프랑스(1.0%), 스페인(1.7%)
 - * (EU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 ('15) 1.4% → ('16) 1.6%
 - * (EU 실업률 전망) ('14) 10.3% → ('15) 10.0% → ('16) 9.5%

□ 시장여건

- EU기금 지원 중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증가는 기회 요인
 - 유럽의회는 2014~2020년 총 1,809억 유로를 동유럽 인프라 개선에 투입 예정
 - * 지능형 빌딩, 고속철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프로젝트 진출기회 확대

- 온라인 쇼핑 및 웰빙제품 시장 성장
 - 유럽 온라인 시장규모는 세계 최대로 2017년 1,910억 유로에 달할 전망
 -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친환경, 재생용품 등은 연평균 9%대 성장
- 지속된 불황에 따른 'Made in Europe' 추세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자국산 제품 보호 움직임, 환경·에너지 규제 강화
 - * 컴퓨터 에코 디자인 적용('14.7), 전기제품 온라인 유통시 EU 에너지 레이블 표기 의무화('15.1) 등
- 러시아의 對EU 식품 수입금지 조치로 동구권 중심의 교역 감소 예상

□ 2015년 수출전망

【호조요인】

- 한·EU FTA 효과 가시화로 인한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 2014.1~9월 기준 對EU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9.0%로 양호한 성장세, 2015년은 약 6% 성장 전망
 - * '14.1~9월 對EU 수출증가율(%) : 자동차부품 8.5, 무선통신기기 7.8, 자동차 6.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6.6

【부진요인】

-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지속과 2015년 美 금리인상 추진으로 유로화 약세 예상, 한국산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 * ('14.1.2) 1,452.99원/유로 → ('14.11.5) 1,366.31원/유로 (약 △6.0%)

【對 EU 국가·품목별 수출여건 차별화】

- (독일)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산업기계 수요 증가, 모바일기기 확산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출 증가 예상
- (영국) 2013년 말 발주한 선박의 인도시기가 2015년으로 예상, 선박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프랑스)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 둔화*로 수출 감소, 저가품 출시

경쟁 가속화에 따른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부진

- * 자국산 품질보증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한국차에 대한 연비 과장 보상판결 등
- (이탈리아) 동유럽 공장 생산 차량 수입으로 한국산 자동차 수출 감소, 밀라노 엑스포 개최에 따른 인프라 건설로 철강제품 수출은 증가
- (폴란드) EU 기금지원 각종 인프라 건설 활성화에 따라 철강, 기초 산업기계, 정밀공구 등 수출 증가 기대

4 | 일본 [0.6% 증가]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불확실한 일본경제는 '15년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며, 엔저 장기화로 우리제품 가격경쟁력 약화가 지속돼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은 '14년 4.2% 감소,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 결정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15년은 다소 회복한 0.6% 증가 전망

□ 경제전망

- 소비세 인상 연기 등으로 2015년 일본경제는 0.8%의 완만한 성장 예상
 - *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0.9% → ('15) 0.8%
 - 소비세율 인상(5→8%)('14.4월) 후 소비심리 위축, 2014년 실질경제 성장률은 전년 대비 0.3~0.9%에 그칠 전망
 - * 日 주요연구소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 : (이토추) ('14) 0.3 → ('15) 1.3, (다이와총연) ('14) 0.4 → ('15) 1.2, (미츠비시 UFJ) ('14) 0.8 → ('15) 1.5
 -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차 등 수혜품목의 해외 수출 증가
- 정부의 추가 양적완화, 무역적자 고착화 등으로 엔저 장기화 가능성
 - * 일본 무역수지(억 달러) : ('12) △874 → ('13) △1,178 → ('14.1~9월) △1,017

□ 시장여건

- 아베신조가 2015년 계획한 소비세 추가인상(8→10%)을 2017년 4월로 18개월 연기하기로 발표('14.11.19)함에 따라 향후 경기부양, 소비 회복 기대

- 일본 제조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확대 지속으로 수입수요 감소
 - *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 ('01) 24.6 → ('07) 30.6 → ('13) 34.6
- 일본 정부의 신성장정책 추진으로 신규시장 진출 기회
 - *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IT, 전자재 분야 등
- 2015년 각종 시행법률 개정에 따른 기회시장 확대
 - (소방법 시행령 개정) 화재관리, 소화기 설치 기준 재검토 등 관련수요 증가
 - (의료·개호 보험법 개정) 재택 의료·개호 서비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확충
 - (약사법 개정) 식품의 성분에 대한 기능성 표시, 기능성 식품시장 규모 확대

□ 2015년 수출전망

【부진요인】

- 엔저 지속으로 인한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지속, 수출감소 우려
 - 2014.10.31일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으로 달러대비 엔화 약세
 - * 엔/달러 환율 : ('14.9.1)104.15 → ('14.10.1)109.85 → ('14.11.25)117.90
 - * 달러강세 심화와 엔저 지속이 겹치면서 원·엔 환율은 급락세
- 對日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
 - (석유제품) 전반적 수요급감, 가격경쟁력 저하 및 중국과 싱가포르산 수입 증가로 한국산 수출 감소
 - (철강제품) 자동차 등 주요 수요처의 내수회복은 부진하나 건축 등 인프라 개보수 수요로 증가
 - (반도체) 한국산 반도체의 가격경쟁력 약화, 동남아 현지공장 역수입 증가 등으로 우리제품 수출 감소 예상
 - (자동차부품) 엔화 약세에 따른 일본 완성차 업체의 국내 생산이 견조하여 수출 증가세 지속 기대
 - * '14.1~9월 對日 수출증가율(%) : 철강판 23.1, 자동차부품 16.6, 석유제품 △20.3, 반도체 △16.4, 무선통신기기 △12.4

5 | 아시아 [7.4% 증가] / 대양주 [3.0% 증가]

- ▶ 아시아 각국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과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로 우리기업 진출이 확대되고, 아세안의 글로벌 생산기지화, FTA 효과 등은 수출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對아시아 수출은 '14년 7.2%에서 '15년 7.4%로 증가할 전망
- ▶ 對대양주 수출은 '14년 선박 인도효과로 인한 14.9% 호조에서 건설 프로젝트 추진, FTA에 대한 기대 등으로 '15년 3.0%로 소폭의 성장세 유지 전망

가. 동남아

□ 경제전망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FDI 유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아세안 경제는 5.4% 성장 전망
 - * 아세안 5개국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4.7% → ('15) 5.4%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종료와 미국시장 등의 경기 활성화로 금융시장 안정
- 태국 정치 안정세 회복, 인도네시아 정권변화와 경제개발정책 추진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의 6~8%대 고속성장 지속

□ 시장여건

- 정부주도 개발 프로젝트를 지속해 현지진출 확대 및 투자여건 개선
 - 산업육성과 사회기반 시설확충, 교통, 전력 등 인프라 확충에 역점
 - * (인니) 경제개발 마스터 플랜(MP3EI), (태국) 2015~2022 인프라 개발계획, (베트남) 플랜트, 자원개발에 일본, 중국, 유럽의 투자 및 ODA 규모 확대
 - 아세안 국가의 글로벌 생산기지화로 글로벌 밸류체인(GVC) 진입
 - * 제조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이전하는 P턴 투자 가속화

- 2015년 AEC* 2조 달러 단일시장 창설로 대외교역 활성화 전망
 - *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련, 미얀마, 인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구성, '15년까지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이동 자유화 추진
 - 동남아 주요국의 경상수지 흑자, 경기안정으로 생산 활동 및 민간 소비는 안정적 증가
 - 아세안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주요 협상주체로 거대경제권 성장 기대
- 한국·베트남 FTA 타결 등에 따른 기회요인

□ 2015년 수출전망

【호조요인】

- 한·아세안 FTA 및 한류 효과로 안정적인 교류 확대 지속
 - '차이나리스크'*를 벗어나 한류의 경제효과 가시화로 아세안과의 교역과 투자 증가
 - *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나 국가가 중국이 긴축정책이나 경제적 취약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겪게 되는 위험
 - 중산층 구매력 향상으로 가전과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증가할 전망
- 각국 경제발전 프로젝트 활성화 효과로 교역 확대
 - 기반 구축 인프라 개발, 건설 프로젝트 관련 중간재·산업재 수출 증가
 - * 아세안은 중동에 이어 한국의 2대 해외건설 수주 지역
 - 동남아 지역의 글로벌 생산기지화 및 P턴 투자 증가로 기계·설비, 섬유, 반도체 등 수출 호조 전망
 - * '14.1~9월 對아세안 수출증가율 5.3%, 아세안의 한국 수출시장 점유율 15.2%

【부진요인】

- 한·중·일 수출경합품목의 수출둔화 우려
 - * 경쟁품목 : (중국) 의류, 철강, 운송기기 등 (일본) 철강, 화학제품, 광학기기 등

나. 서남아

□ 경제전망

- 불황속 세계의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5년 서남아 경제는 4~6%대 성장 예상
 - * 경제성장률 전망(IMF) : 인도 ('14) 5.6% → ('15) 6.4%, 파키스탄 ('14) 4.1% → ('15) 4.3%, 방글라데시('14) 6.2% → ('15) 6.4%
- 구매력평가(PPP) 세계 3위 경제대국 '모디노믹스'의 인도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의 고른 성장세,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성장 지속
- 경제활동 인구 증가, 내수시장 확대는 서남아 국가들의 고른 성장 요인
 - 1인당 GDP 1,000달러를 돌파한 방글라데시, 7%대 고성장을 지속 중인 스리랑카* 등 인도 인근국의 성장세 주목
 - * 스리랑카 경제성장률 추이 : ('12) 6.3% → ('13) 7.3% → ('14) 7.0%

□ 시장여건

- 청년층 중심의 16억 인구를 토대로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 구매력 꾸준한 증가세
 - * 인도는 12억 명 인구 중 35세 이하 8억 명, 중류층 이상은 5억8,300만 명
- 정부주도의 산업육성 강화, 공적 개발원조(ODA)를 통한 각종 인프라 확대 중점
 - 인프라 개선, 도시화·산업화 프로젝트, 제조업 육성정책 적극 추진
 - (인도) 모디 신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및 도로·관개·도시개발·수처리 등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 가뭄 및 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농업부문 생산성 악화 등 변수 존재
 - (파키스탄) 국가 공공자산 매각으로 정부기업 민영화 계획
 - (방글라데시) 중국 및 일본과 인프라 공적개발 원조에 합의

□ 2015년 수출전망

【호조요인】

- 인도 신정부의 경제개혁(모디노믹스), 현지 제조업·인프라 육성정책 ('Make in India') 등에 따라 관련 소재 및 기자재 등의 수요 확대 전망
 - 자동차부품은 중국산과 가격경쟁으로, 루피화 절하에 따른 완성차 기업의 현지조달 확대로 수출 둔화 우려
 - * '14.1~9월 對인도 수출증가율(%) : 반도체 71.1, 석유제품 34.1, 철강판 22.0, 합성수지 18.1, 자동차부품 △19.0 등
- 서남아 개발도상국도 소비시장 확대와 공적개발원조 등에 따른 한국 브랜드 저변 확대가 기대되면서 수출 증가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의 정국 불안은 위험요소로 작용
 - * '14.1~9월 對서남아 품목별 수출증가율(%) : 무선통신기기 188.5, 반도체 70.7, 기타석유화학제품 28.9

다. 대양주

□ 경제전망

- (호주) 제조업과 광산업 부진에도 정부의 통화확장정책 및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2015년 호주 경제는 2.9%로 완만한 성장 전망
 - * 호주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2.8% → ('15) 2.9%
 - 포드, GM, 도요타 등 3대 자동차 제조사 호주 공장 폐쇄('17년) 예정
 - 저금리 기조 유지, 건설 및 서비스업 육성*, 그동안 부진했던 에너지·광물 자원의 생산 및 수출 증대로 2015년 호주경제 성장 견인 예상
 - * '13~'14년 서비스 산업 성장률 : 3.6% (타산업 분야는 2.7% 성장률 기록)
- (뉴질랜드) 지진 복구사업 등 건설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5년 뉴질랜드 경제는 지난해보다 부진한 2.8% 전망
 - * 뉴질랜드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3.6% → ('15) 2.8%

□ 시장여건

- 저금리에 따른 주택담보 대출 증가로 주택건설 붐 지속,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증가
 - * 호주 현지 전국 광대역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 등 추진
- 한·호주 FTA('14.12.12 발효) 및 한·뉴질랜드 FTA('14.11.15 타결)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출증가 기대
 - 뉴질랜드의 내수호황, 재건사업에 따른 건설 및 설비수요 증가
 - * '14.1~9월 對뉴질랜드 수출증가율(%) : 석유제품 59.9, 건설광산기계 51.4, 자동차 15.3
- 광산업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구매력 감소, 소비심리 위축 전망
 - 2013년 하반기 100 이상을 기록한 호주 소비자 신뢰지수(CCI)는 2014년 상반기 평균 93으로 다소 위축, 2015년 동일 추세 지속 예상

□ 2015년 수출전망

【호조요인】

- 프로젝트 및 FTA 효과 등으로 수출은 소폭의 증가세 기대
 - * '14년 對대양주 수출은 12.3%가 예상되는데 이는 선박 호황의 결과
 - 건설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관련자재 수출 증가 예상
 - 현지 제조업 약화로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등 현지 수입수요 상승
 - * '14.1~9월 對대양주 수출증가율(%) : 선박 해양구조물 및 부품 28.6, 레일 및 철구조물 57.9, 석유제품 35.4 등
- 한·호주 FTA 발효('14.12.12)에 따라 수혜 품목 수출 증가 예상
 - 석유제품, 자동차, 기계, 철강 등 우리 주력품목의 수출 확대

6 | 중동 [1.5% 증가] * 북아프리카 제외

산유국 중심의 중동경제는 정부주도형 프로젝트와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으로 시장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나, 정치불안 및 서방 경제제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對중동 수출은 '14년 6.8%에서 '15년 1.5%로 다소 둔화 예상

□ 경제전망

- 지정학적 위기로 둔화되었던 경제가 회복하면서 2015년 중동지역 경제는 3%대 후반의 성장 예상
 - * 산유국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2.5% → ('15) 3.9%
 - *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2.6% → ('15) 3.8%
 - GCC* 국가 중심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 포스트 오일 대비 비석유 부문 산업다각화 정책추진으로 중동지역 경제성장을 촉진
 - * GCC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 * GCC 산유국은 풍부한 정부 재정으로 내수경기 부양 추진, 중산 소비층 성장
 - 정정불안(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서방제재(이란 핵협상), 유가 하락 등 대내외 불안요소는 2015년 경제성장 위협요인으로 작용
 - * 이라크 내전의 진정 국면, 이란 핵 협상타결 기대로 경제제재 완화 전망
 - * 원유수출이 국가재정의 절반 이상인 이라크·이란은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위기 우려

□ 시장여건

- 정부주도형 재정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GCC 6개국 중심의 석유화학 및 인프라 건설 대형 프로젝트 지속
 - * '14.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프로젝트 수주규모는 281억 달러
 - * (사우디) 석유화학,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추진
 - * (쿠웨이트) 클린 퓨얼, 정유공장, 발전소, 담수공장, 도로현대화 프로젝트 등
 - 경기특수(월드컵, 엑스포) 대비 건설기자재,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제조설비 수요 증가

- * 두바이 EXPO 2020, 카타르 월드컵 2022 등 인프라 구축 외에도 보건·의료분야, 스마트 정부 및 IT 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련장비 수요 증가 기대
- 내수시장 발달에 따른 구매력 증가, 소비시장 활성화
 - 신도시 중심 대형쇼핑몰 건설, 재래 유통망 현대화 등 투자 지속 전망
 - * GCC국가의 민간소비는 '15년 4~10%의 성장률 기록 예상
- 무리한 자국민 고용확대, 자국산업 보호정책은 부정적 요소로 급부상
 - 사우디, 카타르 등 GCC 산유국의 자국민 우선고용정책, 오만, 쿠웨이트의 자국산업 육성 정책은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

□ 2015년 수출전망

【호조요인】

- 정부의 적극적 재정투자와 내수경기 활성화, 프로젝트 수주확대로 수출여건 양호
 - 중동정부의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 활황으로 산업기계류 수요 지속
 - * (UAE) 공조기, 용접기, 식품가공기계, (카타르) 정밀기계, (이라크) 광산기계 등이 유망
- 3년차 한·터키 FTA의 관세인하 품목 확대 효과로 2015년 두 자릿수 이상 수출 증가세 기록 예상
 - * '14.1~9월 對터키 수출증가율은 24.5%

【부진요인】

- 프로젝트 수주 경쟁심화로 예년대비 낮은 수출증가 예상, 관련 자재,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은 중국제품과의 가격경쟁이 두드러질 전망
 - * 최근 사우디에서는 프로젝트 경쟁과열로 인한 저가 수주로 인건비 급등, 유가하락 등에 대처하지 못해 국내기업 손실 발생
 - * '14.1~9월 對중동 수출증가율(%) :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40.8, 전선 35.0, 건설광산기계 17.8, 자동차부품 14.4, 철강판 △0.8
- 정치불안, 서방제재 등 대내외 리스크, 엔저 및 유로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는 중동지역 수출증가를 제한하는 위협요소로 작용

7 | 중남미 [3.6% 증가]

중남미 국가의 금융시장 불안정과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은 '14년 중남미 성장은 부진하나,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공동시장 형성으로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수출이 회복되면서 '14년 $\Delta 4.3\%$ 에서 '15년 3.6% 로 기저효과를 보일 전망

□ 경제전망

- 금융위기로 다소 둔화되었던 중남미 경제는 미국 경기회복 영향으로 2015년 2.2% 성장 전망
 - *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1.3% → ('15) 2.2%
- 중남미 주요수출 원자재의 국제가격 하락은 수요 둔화에 영향
 - * '14년 중남미 국가 수준별 성장전망 : 파나마(6%), 콜롬비아·페루(3~4%), 멕시코·칠레(2~3%), 브라질(0~1%),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Delta 2 \sim \Delta 1\%$)

□ 시장여건

- 멕시코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생산기지로 부상
 - 저렴한 임금, 미국·유럽시장 근접성으로 중국을 대체하는 유망 투자 지역으로 급부상
 - * (멕시코) Nissan, GM, Audi 등 주요 완성차 및 전자전기 기업들의 현지 생산 설비 확장 지속
 - * (브라질) 플랜트,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현지진출이 중남미 전체 FDI의 약 50%에 육박
- 중남미계 다국적 기업(Multi-Latina)의 역내 투자 및 글로벌화 확대
 - 자원개발, 에너지, 시멘트, 식음료, 유통, 건설 통신 등 분야별 진출 활발

- 역내 활발한 경제협정 체결로 거대한 공동시장 형성에 따른 기회
 - * 태평양동맹(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페루) : 안정적 성장, 개방적 대외정책, 아시아와 협력의지
 - *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보호무역주의, 중국과 밀월관계
-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심의 중남미 보호주의 강화 지속은 위협요인
 - * (브라질) 철강, 석유화학 등 200대 품목 관세율을 12~18%에서 25%로 인상
 - * (아르헨티나) 사전수입허가제 전면 확대, 수입쿼터제·외환규제 강화 등

□ 2015년 수출전망

【부진요인】

- 2014년 수출은 美 양적완화 종료, 원자재가 하락 등 불안요소 지속으로 내수와 수출시장 수요가 둔화되어 감소할 전망이다, 2015년 수출은 전년의 기저효과로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멕시코) 현대차 판매법인 진출로 자동차 및 부품의 신규수요 발생 기대
 - (브라질) 평판디스플레이 현지 생산체재 구축으로 수입수요 감소
 -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건설업 활황과 정부정책 등으로 기계, 철강제품의 수출증가 전망
 - * '14.1~9월 對중남미 수출증가율(%) : 원동기 및 펌프 34.2, 철강판 2.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4.5, 자동차 △10.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4.7
- 남미 경제대국 ABC(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국가의 분배 중심의 정책, 엔저 영향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은 경계요인

8

CIS [4.6% 감소]

러시아의 서방과 긴장관계 및 루블화 가치하락,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요인으로 CIS 지역은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對 CIS 수출은 '14년 $\Delta 3.8\%$ 에서 '15년 $\Delta 4.6\%$ 로 감소할 전망

□ 경제전망

- 2015년 CIS 경제는 러시아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주요국들의 꾸준한 성장으로 1.6% 성장 전망
 - * CIS 경제성장률 전망(%) : ('14)0.8 → ('15)1.6 (IMF)
 - 러시아는 서방과 긴장관계로 수출·투자여건 악화, 2015년 0.5% 성장 전망
 - 우크라이나는 동부지역 긴장에 따른 산업생산성 저하, 마이너스 성장세
- 러시아·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환율불안 지속, 변동환율제 도입('14.11월)
 - 러시아 금리인상(5.5→9.5%) 추진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약세 심화

□ 시장여건

- 유가하락과 루블화 가치 하락으로 러시아 재정위기
 - * 러시아는 원유수출이 국가재정의 50%를 차지
 - * ('14.11월) 연초 대비 루블화 가치 약 49% 하락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서방 간 통상마찰 심화
 - 러시아의 對 EU 농수산물 수입제재로 소비시장 급랭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출범('15.1월)으로 CIS 경제통합 드라이브 실현
 - 회원국 간 관세철폐, 통관, 인증, 무역규제 등 경제개방도 제고 기대
 - * 벨라루스·카자흐는 '14.5월 EEU창설에 서명, 키르기즈·타지크·아르메니아는 가입검토 중

- 아시아와의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
 - 극동러시아 개발을 둘러싼 한·중·일과의 활발한 협력 가능성 타진, 이집트, 터키, 베트남 등 비CIS 국가와의 FTA 타결 검토 추진
- 인프라 개발·현대화, 유럽-아시아 간 물류·교통지로서의 프로젝트 추진
 - * (러시아) 극동 물류단지, 북극항로 개발, 바이칼아무르 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현대화
 - * (카자흐) 아스타나 엑스포 인프라 건설, (우크라) 동부지역 재건복구 사업 등

□ 2015년 수출전망

【부진요인】

- 러시아 시장정세의 불안정으로 환율에서 실물경제까지 악영향
 - * 수입물가 상승, 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입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 등
- CIS 지역 전반 중장기 침체 지속, 루블화 약세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자동차는 신차수요 감소와 현지생산 증가, 루블화 약세로 수출 축소
 - 석유화학, 철강, 무선통신기기는 중국 및 러시아산 중저가 브랜드 시장공략으로 수출 감소 예상
 - * '14.1~9월 對CIS 수출증가율(%) : 자동차 △18.9, 합성수지 △17.8, 철강판 △8.2, 무선통신기기 16.8

9

아프리카 [3.2% 증가] *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

정부의 대형프로젝트 발주 증가와 역내교역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수출여건 개선 전망, 對아프리카 수출은 선박 부진 및 남아공 경기불안으로 감소세를 보인 '14년 △0.5% 대비 '15년은 3.2%로 소폭 증가 전망

□ 경제전망

- 북아프리카 국가 정세안정 및 정부의 적극적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로 2015년 북아프리카 경제는 3~4%대 성장 예상
 - * 경제성장률 전망(IMF) : 이집트 ('14) 2.2% → ('15) 3.5%, 알제리 ('14) 3.8% → ('15) 4.0%

- 2015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5.8%의 성장률 예상, 2000년대 이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5% 이상 기록 중
 -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IMF) : ('14) 5.1% → ('15) 5.8%
- 중서부 자원부유국(나이지리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성장의 주요 동력, 남아공의 금융시장 불안은 위협요인

□ 시장여건

- 북아프리카 정부의 인프라 관련 대형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출여건 개선
 - *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변전소 건설, (이집트) 수에즈운하 메가 프로젝트, (모로코) 유럽-아프리카 연결 물류허브 조성 추진 등
- 사하라 이남 시장통합 노력 가속화에 따른 역내 교역 증가 예상
 - * '14.12월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EAC(동아프리카공동체),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3개의 지역경제공동체가 Tripartite FTA(26개국) 체결 예정
- 아프리카의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노력
 - 원자재 및 농업분야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인프라 산업 개선 등

□ 2015년 수출전망

【호조요인】

- 세계경기 회복에 따라 아프리카 전역 안정적 성장세 예상
 -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개발원조 및 역내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른 기간산업 분야품목(기계류, 철강제품 등)의 수출 확대
 - * '14.1~9월 對아프리카 품목별 수출증가율(%) : 무선통신기기 96.4, 레일 및 철구조물 63.2,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51.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16.1 등
 - * '14.1~9월 북아프리카 국별 수출증가율(%) : 이집트 49.2, 알제리 36.6, 모로코 2.4

【부진요인】

- 남아공 경기 불안은 아프리카로의 수출 증가를 제한
 - * '14년 수출은 0.5%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선박 부진 및 남아공 경기불안의 결과
- 對라이베리아의 선박인도 부진은 수출둔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

Ⅲ. 2015년 지역별 수입 여건

1 | 북미 [9.8% 증가] * 미국, 캐나다

□ (미국)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대 한국 수출 확대 전망

○ 우리나라의 원자재 및 반도체 등 수입수요 증가 예상

- 셰일 붐으로 석유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제품의 수입 확대

- 반도체·장비, 식물성 물질, 곡실류 등은 꾸준히 증가세 유지 전망

- 쇠고기 수입증가 지속, 미국산 육류의 국내유통 확대 예상

* '14년 1~9월 수입증가율(%) : 석유제품 466.8, 식물성물질 158.2, 반도체제조용 장비 26.7, 항공기 및 부품 △25.6, 육류 31.2

□ (캐나다) 한·캐 FTA 영향, 원자재의 국내 수입수요 증가 전망

○ 양국의 에너지·자원 협약에 따른 광물, 곡류, 육류 등 수입증가 지속

- 동광·철광의 국내 수입수요 증가, 환율로 인한 국제가격 변동으로 캐나다산의 가격경쟁력 개선

* '14년 1~9월 수입증가율(%) : 석탄 △8.2, 동광 277.2, 목재류 28.6, 철광 636.8

2 | 중국권 [7.1% 증가] * 중국, 홍콩, 대만

□ (중국) 중국 정부의 지원정책 및 한·중 FTA 타결 후 수입 확대 기대효과로 수입증가 예상

○ 자국 수출기업에 대한 세수혜택(수출세 환급), 통관절차 간소화 등 중국 정부의 수출지원 확대 방안은 한국의 대중 수입에 긍정적 영향

* '14년 1~9월 수입증가율(%) : 무선통신기기 123.5, 철강판 48.0, 반도체 10.7

□ (대만) 대만産 중간재 수입 양호할 전망

- 아이폰6 출시로 관련부품 및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차세대 IT 반도체의 對대만 수입증가 예상
- 철강제품은 중국시장 변수 등에 따라 한국의 수입수요 감소, 컴퓨터도 대만 완성품 메이커 부진의 영향으로 수입 둔화 우려
- * '14년 1~9월 수입증가율(%) : 반도체 3.9, 철강판 △15.1, 컴퓨터 △10.1

□ (홍콩) 중국 영향으로 한국의 對홍콩 수입 감소 예상

- 중국의 인건비 상승, 내수 주도형 경제체질 변화, 달러 및 위안화 강세로 중국제품의 홍콩을 통한 수입은 감소할 전망
- 광동성 제조기반이 동남아 이전 등 탈중국 현상으로 이어져 무선 통신기기 등 관련부품 수입 감소세 예상

3 | 유럽 [9.1% 증가]

□ 한·EU FTA 체결 후 수입 증가세 지속 전망

- '11.7월~'14.8월 對EU 수입은 연평균 13% 증가
- 수입 1~2위 품목인 자동차 및 원유 수입은 뚜렷한 증가세
- * '14년 1~9월 對EU 수입증가율(%) : 자동차 55.1, 원유 19.1, 반도체제조용장비 21.0, 항공기 및 부품 121.4
- * 원유는 한·EU FTA 발효로 EU産 브렌트유 관세가 3%에서 철폐되면서 운송비 부담 상쇄
- 한·EU FTA 추가 관세인하와 유로화 약세지속으로 EU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수입 확대 전망
- * ECB의 양적완화, '15년 美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유로화 약세 지속 예상
-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독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프랑스의 농·축산물 수입 증가세 지속, 스페인의 에너지·석유제품도 증가세

4 | 일본 [6.7% 감소]

□ 對日 수입 감소세는 지속 전망

- 일본 경기 상승세 둔화로 제조업 관련품목 수입 하락 추세 지속
- 반도체, 철강 등 산업생산 관련 품목의 수입 하락 폭 확대
* '14년 1~9월 對日 수입증가율(%) : 반도체 △14.3, 철강관 △7.5, 석유제품 △32.3
- 일본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일본의 직접 수출 감소뿐 아니라 對日 수입 감소도 영향
*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 : ('01) 24.6 → ('07) 30.6 → ('13) 34.6

5 | 아시아 [2.7% 증가] / 대양주 [1.3% 감소]

□ (동남아)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은 있으나 반도체 등 수입 증가

- 싱가포르 등 현지 진출기업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반도체 수입 증가, 의류·신발은 동남아 진출기업으로부터 완제품 역수입 증가
* '14년 1~9월 對아세안 수입증가율(%) : 반도체 10.0, 의류 33.1, 신발 25.0
- 對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원유·가스 등 천연자원 수입액은 국제가격 하락으로 감소 전망
* '14년 1~9월 對아세안 수입증가율(%) : 천연가스 △0.5, 원유 △47.3

□ (서남아) 석유제품 등은 다소 부진, 의류·가죽제품은 수입증가 전망

- 인도 석유제품 주요 생산업체 '릴라이언스' 공장 보수로 수입 부진, 가뭄에 따른 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對인도 곡물 수입 축소
* '14년 1~9월 對인도 수입증가율(%) : 석유제품 △23.8, 식물성물질 △51.5
- 방글라데시는 對최빈개도국(LDC) 특혜관세가 전체 품목의 95%로 확대되면서 수입 증가, 의류·가죽 등 증가 예상
* '14년 1~9월 對방글라데시 수입증가율(%) : 신발 71.4, 가죽 28.5, 의류 23.5

□ (대양주) 주요 원자재의 수입 감소 예상

- 석탄·동광·알루미늄 등 주요 광물자원은 국제가격 하락,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입 감소 전망
 - * '14년 1~9월 對 대양주 수입증가율(%) : 동광 △20.6, 알루미늄 △17.1, 석탄 △1.9
- 쇠고기를 비롯한 곡물, 육류 등은 국내의 수입수요가 꾸준히 증가, 한·호주 FTA 체결에 따라 수입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

6 | **중동 [4.9% 증가]** * 북아프리카 제외

□ 유가 하락에도 對중동 광물성 연료 등 수입수요 유지 전망

- 한국의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 對GCC 산유국 원유, LNG 등 수입은 대부분 장기계약에 의한 도입으로 수입 유지
 - * '14년 1~9월 對GCC 수입증가율(%) : 알루미늄 43.6, 원유 4.2, 천연가스 △4.2
- 단, 미국 셰일오일 개발, OPEC 감산조정 실패('14.11.27)로 유가가 지속 하락하면서 '15년 수입 증가세도 제한될 우려

7 | **중남미 [4.5% 증가]**

□ 중남미産 원자재 수입수요 회복 전망

- 중남미의 철광석·동광 등 주요 광물자원은 원자재가 하락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우리의 수입수요는 유지 또는 소폭 증가 전망
 - * '14년 1~9월 對중남미 수입증가율(%) : 철광 11.6, 동제품 11.9, 동광 △12.3
- 한·콜롬비아 FTA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유연탄 및 원유 수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8

CIS [3.8% 증가]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자원 등 수입 소폭 증가

-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는 유럽과 마찰 발생, 수출선 다각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북아 지역에 원유, 천연가스 등 수출확대 전망
 - * '14년 1~9월 對CIS 수입증가율(%) : 석유제품 207.1, 천연가스 87.8, 원유 16.2
 - 단, 국제적인 유가 하락은 수입 증가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는 CIS 시장 대신 곡물 및 사료의 신규 수출지로 한국을 적극 공략,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입 급증 전망
 - * '14년 1~9월 對우크라이나 수입증가율(%) : 식물성물질 800.1, 곡실류 7,123.2

9

아프리카 [7.5% 증가] *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

□ 북아프리카 광물성연료 수입 증가세, 사하라 이남은 원자재 수입 확대

- 리비아 원유 생산차질로 인한 부족분은 알제리, 모로코 등에서 충당하여 수입, 리비아의 생산설비 복구 이후 수입은 증가세 지속 전망
 - * '14년 1~9월 對주요국 수입증가율(%) : 알제리 115.9, 리비아 85.4, 모로코 132.2
- 남아공 등 주요 수출국 통화가치 하락으로 원자재 가격경쟁력 상승, 원유 및 가스, 철광석 등 수입 소폭 증가 전망
 - '14년 1~9월 기준 對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입액은 49.9% 증가
 - * 품목별 수입증가율(%) : 원유 603.5, LPG 403.2, 천연가스 21.7

작 성 자

- | | | |
|--------------|-----|------|
| ◆ 정부3.0추진팀 | 서진영 | 전문위원 |
| ◆ 북미지역본부 | 차성욱 | 과장 |
| ◆ 중국지역본부 | 이은영 | 과장 |
| ◆ 유럽지역본부 | 이수영 | 차장 |
| ◆ 도교무역관 | 박은희 | 과장 |
| ◆ 동남아태양주지역본부 | 이상훈 | 과장 |
| ◆ 뉴델리무역관 | 유 리 | 대리 |
| ◆ 중동지역본부 | 김도형 | 차장 |
| ◆ 중남미지역본부 | 이주희 | 차장 |
| ◆ CIS지역본부 | 우상민 | 차장 |
| ◆ 아프리카지역본부 | 이인규 | 차장 |

Global Market Report 14-043

2015년 지역별 수출입 전망 및 시장여건

- 발 행 인 | 오영호
편 집 인 | 윤원석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